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4. 10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이사야 · 요한복음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Contents

- 2 10월 일정표
- 4 기도제목표
- 6 매일묵상 이사야 28~29장
- 14 10월 5일 성경 공부
- 16 매일묵상 이사야 30~33장
- 28 10월 12일 성경 공부
- 30 매일묵상 이사야 34~37장
- 42 10월 19일 성경 공부
- 44 매일묵상 요한복음 18~19장
- 56 10월 26일 성경 공부
- 58 매일묵상 요한복음 20~21장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10

October 20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세계 당뇨 주파 종료	18
19	20	21	22 임직예배	23	24	25
26 종교개혁주일 재림자 주일 · 성령강림	27	28	29	30	31	

교회 주요 일정

10월 17일

피택 창로 주제 발표

10월 22일

임직예배

10월 26일

종교개혁주일

제5차 학습세례식

10월, 개인 전도 계획

10월 1일 ~ 10월 31일

10월 2일 ~ 10월 31일

10월 3일 ~ 10월 31일

10월 4일 ~ 10월 31일

10월 5일 ~ 10월 31일

10월 6일 ~ 10월 31일

10월 7일 ~ 10월 31일

10월 8일 ~ 10월 31일

10월 9일 ~ 10월 31일

10월 10일 ~ 10월 31일

10월 11일 ~ 10월 31일

10월 12일 ~ 10월 31일

10월 13일 ~ 10월 31일

10월 14일 ~ 10월 31일

10월 15일 ~ 10월 31일

10월 16일 ~ 10월 31일

10월 17일 ~ 10월 31일

10월 18일 ~ 10월 31일

10월 19일 ~ 10월 31일

10월 20일 ~ 10월 31일

10월 21일 ~ 10월 31일

10월 22일 ~ 10월 31일

10월 23일 ~ 10월 31일

10월 24일 ~ 10월 31일

10월 25일 ~ 10월 31일

10월 26일 ~ 10월 31일

10월 27일 ~ 10월 31일

10월 28일 ~ 10월 31일

10월 29일 ~ 10월 31일

10월 30일 ~ 10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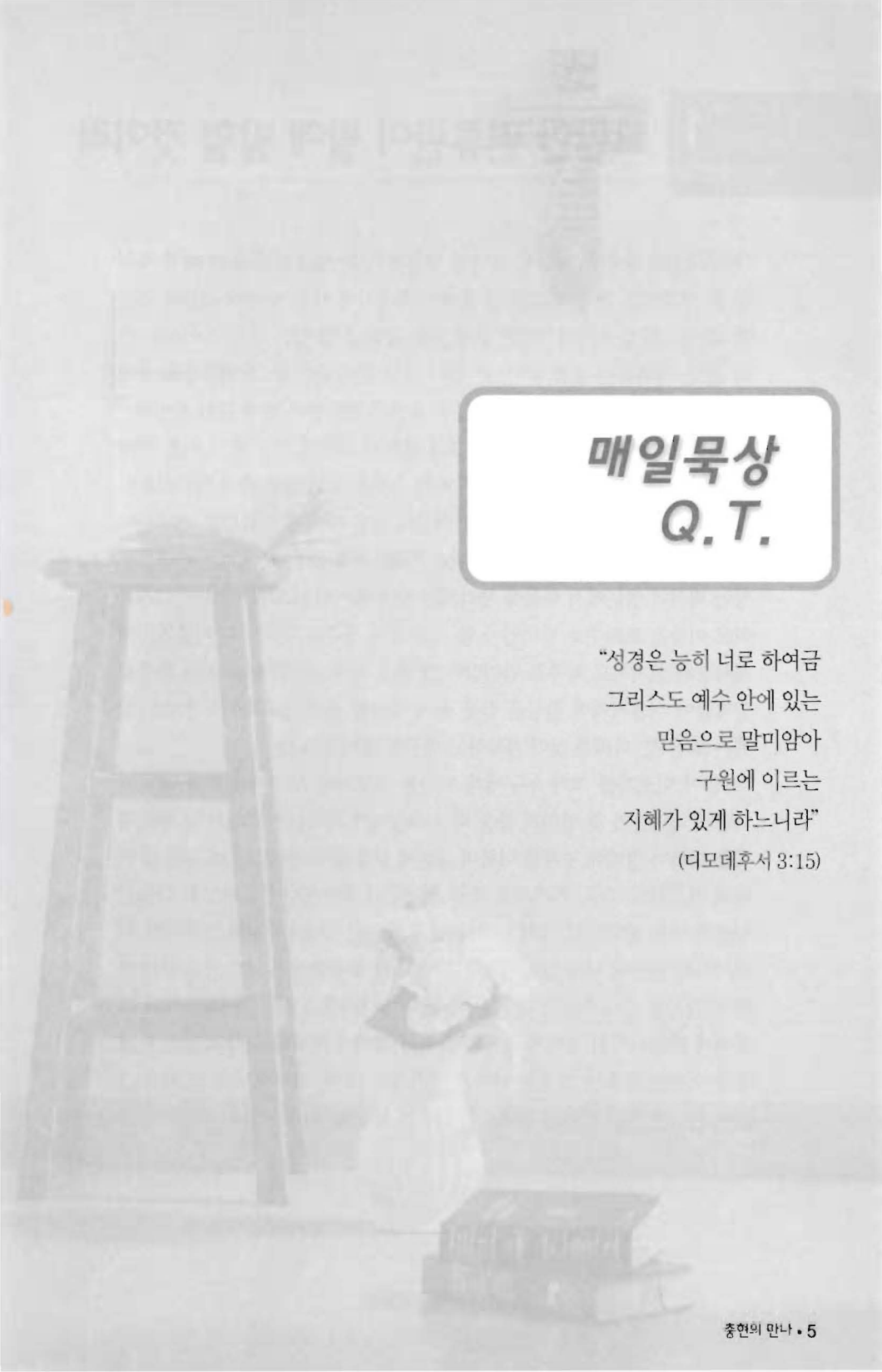
10월 31일 ~ 10월 31일

11

Nov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① 충청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감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청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⑤ 충청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전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만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청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병·합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㉑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㉒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㉓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다 ㉔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㉕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다 ㉖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엮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엮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㉗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㉘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㉙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㉚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㉛전에 그들에게 이 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यो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㉜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1~8절)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 열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 한 지파로서 북 왕국의 별칭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면류관’ (1절)이라 불릴 정도로 풍요롭 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물질의 풍요에 젖어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하여 방종에 빠졌던 이 도시는 앗수르 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2~3절). 그러나 ‘그 날에’ (5 절)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 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남겨 놓으신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 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9~13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려 했지만(12절), 술 취한 자들로 묘사된 유다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7~8절)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비웃었습니다 (9~10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들은 ‘생소한 언 어와 다른 방언’ (11절)을 쓰는 앗수르와 같은 이방인들에 의해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려 붙잡히게 됩니다(13절). 그런데 이 일은 오늘 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 음이 선포되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 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눅 17:27).

Q.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Q.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짖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짖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함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삼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 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라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14~19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1절). 선포된 재앙에 대해서도 이들은 동맹국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2절). 이사야는 이들의 교만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스스로 시온에 대해 지키시기로 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16절).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기춧돌'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인용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백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벧전 2:6).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역이 가이할 것임이라(20~22절)

세상 나라의 도움은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20절)처럼 쓸모없는 물건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이방과 맺은 언약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들이 의지하는 바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브라심 산에서(삼하 5:17~25), 기브온 골짜기(수 10:10~14)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상대하여 싸우시며 가이한 사역이 펼쳐집니다(21절).

Q. 내가 평생 의뢰할 견고한 기초 둘은 누구입니까?

Q. 세상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
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
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
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
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
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
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
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나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23~25절)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선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다양한 일을 하는 것에 견주어 자신을 변호합니다. 농부는 땅을 갈아 준비하고 씨를 뿌리며 추수를 하고 거둔 곡식을 타작합니다(24절). 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때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25절).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새(26~29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고 가르치십니다(26절). 농부가 자신의 농작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각 성장 단계에 맞게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을 자세히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개입하십니다(2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사람의 은사와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까?

Q. 매 주일 설교를 듣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려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지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절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자절이리라 그렇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 같이, 밤의 환상 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사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알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1~8절)

예루살렘이 대적에게 포위를 당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아라멜을 치는 무리의 공격을 '꿈 같이, 밤의 환상 같이' (7절) 허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성을 에워쌌던 앓수르 군사들에게 이루어졌지만, 이 단락(1~8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해방을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의 실제 역사는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9~12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맹인입니다(9절).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마 15:14).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Q.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Q.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10월 5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최근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까?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29:13~24을 읽으십시오.

1. 유다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13절)
2.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15~16절)
3.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영적 은혜는 무엇입니까?(17~24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존재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적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외식적인 제사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만홀히 여겼습니다(마 15:7~9 참조).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13절). 이사야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사 1:4).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같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 23:28).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거룩하게 되는 신령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 세상으로

1. 예배를 드리기 전, 메마른 자신의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일주일 동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돌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배집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밧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속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1~7절)

이사야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강조했습니다(7절). 하지만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함락한 앗수르가 유다를 위협해 왔을 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묻지도 않은 채 바로의 세력을 의지했습니다(1~2절). 그 결과는 그들에게 수치로 돌아왔습니다(3~5절).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보화를 싣고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유다가 했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습니다(6절). 옛적에 모세를 따라 애굽으로부터 보석을 빼앗아 나왔던 그 길을 유다는 자신들의 재물을 싣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아 그릇을 깨뜨림 같이(8~14절)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기록하여 남겨야 했습니다(8절). 그 내용은 유다 백성에게 내려질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거짓이라도 좋으니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 달라고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10~11절).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기보다 언제나 행통의 축복을 내려주는 기복적 예수를 만들어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환상은 깨어질 것입니다(14절).

Q.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Q. 비탄과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탈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지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임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얼굴 배가 되어 얼굴 날의 빛과 같으리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15~17절)

유다는 기마 병력을 신뢰하며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거들먹거리다가 결국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16~17절). 그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15절).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18~26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18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통곡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19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절). 역호와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통곡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Q.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Q.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보라 여호와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불듯 하며 뿔뿔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마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와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험악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와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시라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으니 여호와와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의 진노가 불 불듯 하며(27~30절)

앗수르가 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을 파괴했을 때, 남은 성읍은 예루살렘뿐이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 원방에서 자신들을 잊고 계신다고 생각했지만 이사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을 벌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27~28절).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님이 홀연히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천국 백성들의 개선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계 21: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31~33절)

유다를 극도로 위협하던 강대국 앗수르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낙담하고(31절), 하나님이 예정하신 몽둥이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32절). 이사야는 하나님이 적들을 태워버릴 제단 불을 준비하시고 친히 불사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33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죽어서 갈 곳은 오직 지옥뿐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꺾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마 3:12).

Q.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쇼핑 등에 빠져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Q.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횡행한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¹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²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돌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³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할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 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⁴“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⁵“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⁶앗수르는 칼에 엎드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⁷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지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여호와와 ⁸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와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다 함께 멸망하리라(1~3절)

유다는 나라에 어려움이 닥차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1절). 그들은 애굽의 군사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1절).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영리함을 신뢰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같은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역설했습니다(3절). 하나님의 지혜(고전 1:24)인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미련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4~9절)

앗수르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불안하여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사야는 두 가지의 비유를 보여줍니다. 사자가 자기를 몰아내려는 한 무리의 목자에게서 자기의 먹이를 지키고, 어미 새가 보금자리의 새끼들을 그 어떤 공격자에게서라도 지켜내듯, 만군의 여호와와는 자신의 성읍과 사온 산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 13:6).

Q. 주님의 방법이 내 방법에 비해서 어리석게 보인 적이 있습니까?

Q.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
 가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
 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
 지 아니하리니 “아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
 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의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
 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지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
 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이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
 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 년 남짓 지
 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
 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베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
 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켄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
 원히 굴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 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
 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
 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1) 한 사람이 있어서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1~8절)

이사야는 장차 오직 의와 공평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출현할 것을 예언합니다(1절). 이 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통치는 광풍을 피하는 곳처럼, 마른 땅의 냇물처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안식을 줄 것입니다(2절). 또한 그분의 의로운 통치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분의 백성의 심령까지 새롭게 합니다. 이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없던 자가 민감하게 변해 되어 영적 분별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명확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9~20절)

선지자의 거듭되는 심판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일한 여인들'은 풍족한 수확을 기대하며 즐거움에 취해 있고, '염려 없는 여자들'은 자기의 능력만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이릅니다(9~13절).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고통과 궁핍도 따릅니다(14절). 그러나 이와 같은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15절). 성령의 임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줍니다(17절).

Q.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매 순간 십자가만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Q.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떼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들어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십시요 정의와 공의를 사온에 충만하게 하십시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밤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자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격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홉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사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1~6절)

앗수르는 최강의 군사력으로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의 화친 요청에도 침략을 멈추지 않았으며(왕하 13~17장)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은 모두 흩어져서 사라져버렸습니다(2~4절).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6절).

나의 권능을 알라(7~16절)

유다의 사신들이 화친을 맺으러 앗수르로 갔지만, 앗수르는 도리어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무역로가 끊기게 되었고(8절), 예고 된 평화(6절)와는 달리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9절).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던 앗수르는 도리어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유다 백성까지 두려워 떨니다(11~14절). 앗수르와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함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뿐이었습니다(15~1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 경외하기'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정했습니까?

Q. 하나님의 공의를 언제 경험했습니까?

10월 12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여호와와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 이시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니까?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33:17~24을 읽으십시오.

1.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20절)
2.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십니까?(21~22절)
3.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24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히스기야는 앓수르의 조롱으로 인해 애통해하며 옷을 찢고 굶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존귀와 위엄을 회복한 모습으로 다시 백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17절).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임하는 날,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이들이 영광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수지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셨습니다(히 8:1). 그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비록 이 땅 위의 가시적 교회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그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 세상으로

1.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2.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여호와와 칼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 당하게 하였은즉 “그 살륙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신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라되 그 만상의 최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와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와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터끌은 유흥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영경원과 새롭이 자라서 송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집송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꺼서 그그늘에 모으며 술객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와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 이는 여호와와 칼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 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1) 일월성신 2) 히, 나 3) 국가를 선언할 귀인들이 없고 4) 독사

민족들이여(1~7절)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입니다. '여호와와 칼'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심판의 칼은 에돔을 향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인 관계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꾀방하고 대적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에돔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에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상징으로서,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요 12:3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8~17절)

이사야는 에돔이 창조 전의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8~15절). 그리고 이 예언대로 에돔은 들짐승들과 부엉이와 올빼미 등의 야생동물들이 사는 땅이 될 정도로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에돔의 땅은 사람들이 아니라 들짐승들에게 분배되는데, 이것은 에돔이 두 번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맞게 될 최후 심판은 얼마나 더 참혹하겠습니까? 이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Q.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Q. 경쟁자가 곤경에 빠질 때 긍휼히 여깁니까? 기뻐합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집내는 자들에게 이끄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늪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이다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1~4절)

애도의 파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일어납니다(1~2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땅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권면합니다(3~4절).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때에(5~10절)

하나님이 오셔서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는 그 날에는 맹인의 눈이 밝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5절). 그리고 저는 자가 뛰게 되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며, 메마른 땅이 변해 물이 샘솟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6~7절). 이사야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저룩한 시온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뿐이라고 말합니다(9절). 그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10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내 인생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Q.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현재의 고통과 근심을 이기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1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앓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2 앓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잊못 수도 결
 섣탁자의 발 큰 길에 서매 3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션나와 아삽의 아들 시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4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앓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 내가 말하노니 네가 죽히 싸울 계략
 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
 를 반역하느냐 6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
 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찢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
 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7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
 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
 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8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앓
 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이전 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9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
 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10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와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
 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1 이에 엘리아김과 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12 랍사게가 이르
 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1~10절)

히스기야 왕 십사 년에 앓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합니다. 앓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랍사게를 보내 협상을 벌입니다(1~3절). 랍사게는 유다가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조롱하며(7절), 한 술 더 떠 유다에 대한 앓수르의 침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1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욕하던 자들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40). 악한 자들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11~12절)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11절).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이 극심한 기근으로 고생하며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떠들어대며 조롱했습니다(12절). 하지만 랍사게의 위협을 들으며 하늘에서 그를 비웃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시 2:4).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최근에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과 절망은 무엇입니까?

Q.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¹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²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³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⁴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행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⁵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⁶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⁷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⁸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⁹그 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쉔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약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미혹되지 말라(13~20절)

사탄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랍사게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고 말했습니다(13절). 히스기야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독려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앗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각각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 물을 마시게 된다는 거짓 약속으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16~17절).

그들이 잠잠하여(21~22절)

랍사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치며,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도 에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0절).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화유책에 대해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의 지시에 따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21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행 8:3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믿음이 약해질 때 부르면 힘이 되는 찬송이 있습니까?

Q.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벌려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쉔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전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그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앗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랍사를 치고 있더라 “그 때에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할에 관하여 들은즉 사 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임이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밋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전쳤느냐 “하맛 왕과 아르밋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1) 히. 아모츠

여호와와 전으로 갔고(1~13절)

랍사게의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갔습니다(1절). 그는 산하들을 이사야에게로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2~3절), 이사야는 랍사게의 엄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4절). 그리고 앗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게 된다는 것까지 점언했습니다(7절). 그러나 앗수르 왕은 유다에서 잠시 철수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또 다시 메신저들을 보내 그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8~9절), 거듭하여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킨 앗수르의 위력을 강조했습니다(10~13절).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퍼 놓고(14~20절)

절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정전으로 올라가 산해림이 보낸 글을 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14~15절).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산해림의 오만불손과 비아냥거림이 담겨있었습니다(17절). 산해림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위에서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요청했습니다(18~20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지만(마 6:8),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겔 36:37).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삶에 문제가 닥칠 때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Q.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와 열심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앗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궤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책망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팔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 같이, 푸른 나물 같이, 지붕의 풀 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었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싼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흥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1) 히, 아모스 2) 히, 네 뒤에서

내게 기도하였도다(21~29절)

산헤립의 교만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21절). 산헤립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엎드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구원을 받았지만, 기고만장하여 하나님까지 멸시한 산헤립과 앗수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잠 3:3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30~38절)

언약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여호와와 열심으로 성취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30절). 황폐해진 유다 땅에 2년 동안 먹을 것이 저절로 나고, 3년째가 되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 저둔 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35절). 이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언약을 모두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Q.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Q.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10월 19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38:1~22을 읽으십시오.

1.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7~8절)
2.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10~17절)
3. 병이 회복된 히스기야 왕이 각오한 한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20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히스기야의 기도와 찬송에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11절). 죽음의 공포는 사탄이 인간을 사로잡는 최고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병이 낫기를 간구했습니다(14절). 그는 처음에는 질병의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신 이후에는 이것이 주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창 3:15).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죽음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죄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롬 5:20~21).

■ 세상으로

1.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까?
2.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교회와 세상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말하개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 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쪼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15~24절)

그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19절). 그런데 이 심문의 현장에서 율법을 어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방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명 이상의 증인의 발언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신 19:15).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안나스의 이러한 불법을 지적하셨습니다(21절). 대제사장이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구타했습니다(22절).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에게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25~27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갔지만, 더 이상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쪼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아니라'라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확실하게 그를 알아본 사람의 말조차도 부정했습니다(26절). 자신을 부인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가 오히려 자신이 아닌 주님을 거듭 부인했습니다(27절). 지금 우리는 누구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Q.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로 인해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Q. 예수님이 부당하게 심문 당하시는 모습에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태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은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28~32절)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심문했지만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습니다(28절). 그들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官庭, 로마 총독의 공관)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28절).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 양의 참된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요 1:29). 반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3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33~40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적하는 선동가인 것처럼 고소하자(눅 23:1~2),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33절).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속한 어느 특정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36절). 이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37~38절).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진리의 중심에 꽂힌 진리의 깃발입니다.

Q.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부한 경험이 있습니까?

Q.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보라 이 사람을(1~5절)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조롱하도록 했습니다(1~3절). 군인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왕의 차림새로 분장시켰고,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알아보지 못한 채 비웃었지만,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심으로 자신의 영원한 왕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6~11절)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했지만(6절),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7절). 그러나 이 주장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다' 라는 그들의 말과 모순되는 주장이었습니다(요 18:31).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Q.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Q.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¹²²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¹²³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¹²⁴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¹²⁵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¹²⁶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¹²⁷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¹²⁸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¹²⁹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¹³⁰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¹³¹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¹³²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¹³³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가이사(12~16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관으로서의 잘못된 사형 판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11절).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습니다(12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외치며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자신들이 빌라도보다도 더 로마 황제에게 충성스럽다는 전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되고자 했던 자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17~22절)

빌라도는 당시에 통용되었던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의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유대인의 왕'임을 밝히는 명패를 십자가 위에 걸게 했습니다(19~20절). 이 명패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에 항의하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대답했습니다(22절). 물론 이것은 빌라도가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니었지만, 성경은 그의 발언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Q.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Q. 주변의 분위기에 눌려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내 옷을 나누고(23~27절)

처형당하는 사람이 입었던 옷을 사형 집행을 담당하는 부대의 군인들이 나누어 갖는 것은 로마의 관례였습니다(23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24절). 성경은 이 모든 일을 구약의 성취라고 말하며(24절),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출 28:31~32).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분의 속옷까지도 벗겨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비참한 처옥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28~30절)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명의 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성경을 성취하고자(시 69:21)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28절). 그리고 그 뒤에 신 포도주를 받으신 주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30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보다 더 강하게, 이보다 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확증된 일은 인류의 역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Q.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나는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Q. 내 일생을 마치고전에 끝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증언이 참이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때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1) 리트라는 약 327그램임 2) 출 12:46 민 9:12 시 34:20 3) 속 12:10

피와 물(31~37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 되었다는 사실을 죽음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양이 도살되는 시간에 참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33절).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잔혹한 행위였지만, 고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쏟으신 물을 세례로 해석하고, 그분의 피를 성만찬으로 해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세례와 성만찬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거기 두니라(38~42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동안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 됨을 숨겨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인적이 드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전과는 달리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38~39절). 이처럼 소심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히려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신을 무덤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더 깊이 두게 되었습니다.

Q. 세례식과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릅니까?

Q. 예수님의 죽음은 내게 어떤 영적 용기를 주니까?

10월 26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다 보았나이다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맞본 뒤에 교만해져서 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39:1~8을 읽으십시오.

1.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1~2절)
2. 히스기야 왕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3~4절)
3.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선포한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5~7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랑하던 것들과 함께 멸망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 이와 같은 교만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써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 20:7).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세상으로

1.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 주며 살고 있습니까?
2.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안식 후 첫 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찢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판 곳에 찢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으로 갈새(1~5절)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목격했습니다(1절). 그녀는 무덤 안에 들어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 누군가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전했습니다(2절).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3절). 두 제자가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으나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4절).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에(6~10절)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활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9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충만히 채워주셨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Q. 매 주일을 부활절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Q. 언젠가 들었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 경험이 있습니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찾느냐(11~18절)

막달라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여 울고만 있었습니다(11절). 그 눈물과 슬픔에 눈이 가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14절).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천히 다가서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에야 비로소 그녀의 눈은 열리게 되었습니다(16절).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기쁨에 사로잡혀 주님의 몸을 붙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가져올 하나님과 제자들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며 그녀를 보내셨습니다(17~1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19~23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지만(19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기쁨과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21절). 특별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은 옛 창조(창 2:7)를 능가하는 새로운 창조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22절).

Q.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Q.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

☞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24~29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2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28절). 사도 요한은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30~31절)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31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읽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되는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느 곳을 읽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사도신경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Q.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시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㉑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㉒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㉓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㉔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㉕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㉖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㉗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㉘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㉙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㉚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㉛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십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㉜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㉝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㉞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1~7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1절). 그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3절). 동틀 무렵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은 잡은 고기가 없다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5~6절).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고, 그 결과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6절). 요한은 이것이 자신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이었음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8~14절)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로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로 야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9절). 자신이 맡긴 사명을 뒤로하고 물고기 잡이를 나섰던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12절).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던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습니다(13절).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Q.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열정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Q.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느꼈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일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라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나를 따르라(15~19절)

숫불 앞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숫불 앞에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께서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의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찬할 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는 진정으로 자신이 부인되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18~1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20~25절)

베드로의 질문(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저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궁금해 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24절).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로 자신의 백성인 성도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들 각자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Q.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Q. 내게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의 사명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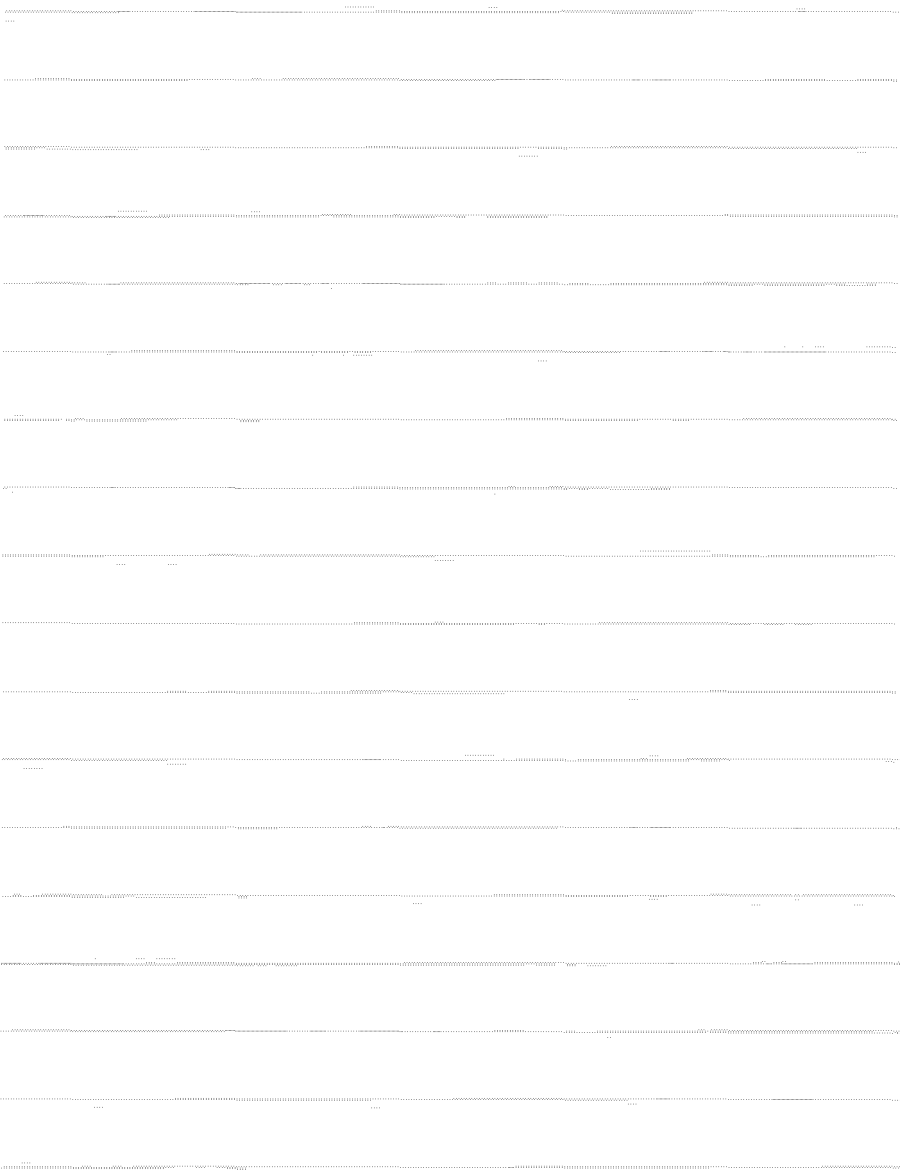
~~~~~

~~~~~

~~~~~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4년 10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장철환 · 집필진 | 이광웅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물]